

만해 스님과 역사인물 인연 한눈에

경봉 스님·김구 등 남긴 유묵통해 역사 재조명

경봉 스님과 만해 스님, 김구 선생과 만해 스님, 조지훈과 만해 스님, 이순신과 만해 스님...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은 무관한 보이는 이들 인연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만해 스님과 그들의 유묵(遺墨)·고인이 남긴 글씨나 그림을 살펴 그들 속에서 만해를 발견하고, 만해 속에서 그들을 읽었다. '만해 한용운과 그 사람들' 특별기획전에서 선보이는 내용이다.

만해기념관은 10월 16일~11월 14일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에서 '만해 한용운과 그 사람들' 특별기획전을 연다. 만해 열반 60주기를 기념해 고승 23인, 역사인물 6인, 독립운동가 17인, 문화예술인 14인 등 인물 60명의 유묵(60점)과 관련자료(20점)가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만해 스님과 인물들의 관계가 전시 작품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다. 이는 만해 연구에 매진해온 전보삼 관장이 생전 면담과 문헌 발

'만해 한용운과 그 사람들' 특별기획전

굴을 통해 40여 년 간 모은 자료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전시 작품은 만해 스님의 탄생 1백주년을 기념하며 남긴 경봉 스님의 글씨, 한국차도문화를 이끈 호당 최범술 스님이 만해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이해 작성한 추도문, 만해 스님 유족 근황을 실은 범산 김법린 스님의 친필 원고 등 당대 고승들의 유묵이 가장 많다. 또한 경허 스님에 대한 만해 스님의 깊은 정한을 읽을 수 있는 '경허 스님 열반 30년 기념' <경허집> 서문 등도 가려 뽑아 전시된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고 '만당(萬黨)'이라는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도 했던 만해 스님은 독립운동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위당 정인보 선생이 해방되던 날 만해 스님을 떠

올리며 지은 시를 비롯해, 정선강의 <채근담>에 부친 만해의 서문을 읽고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일강 산하수 선생의 글씨 등도 선보인다. 또한 독립운동 동지로서 만해 스님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 '매반불망(每飯不忘)' 등 기념관의 희귀 소장 자료도 함께 진열대에 오른다.

자신을 국보라고 부르려던 양주동 박사조차도 <나룻배의 행인> 앞에서는 조라해집을 느꼈다고 고백할 정도로 시인으로서의 만해 스님 역시 주목받았다. 그의 문향과 한결같은 의지에 매료된 한국화가 이당 김은호 선생이 만해 스님의 회화를 축하하며 선사한 포대화상 화폭을 비롯해, 만해 스님이 다솔사에서 살한 '소신공양' 이야기를 듣고 구성하게 된 김동리의 <등신불> 등도 창작 사연과 함께 전시될



만해 스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남긴 경봉 스님의 글씨.

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만해 스님 삶에 지점이 됐던 역사인물의 문헌들도 공개된다.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일기체로 기록한 이순신 장군의 <임진일록> 등의 고서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16일에는 만해 스님의 전시 좌상을 석재화법으로 그린 '만해당 운운대선사 진영' 불안식도 함께 진행된다.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은 "한 인물과 관련된 유묵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는 이례적인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를 설명하고 있는 전보삼 교수. '매반불망(每飯不忘)·밥 먹을 때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김구 선생의 유묵이다.

이라고 말했다. (031)744-3100. www.manhae.or.kr 남한산성=강신재 기자

실천불교 실현 주제로 스님·재가자 법석 펼쳐

봉은사

서울 강남지역의 대표적인 사찰 삼성동 봉은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불법을 회향하고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법석이 시작된다.

'정토세계를 열어가자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10월 3일 시작된 '정토세계' 법석은 12월 19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0월 3일 열린 첫 법회의 법사로 나선 현각 스님은 "부처님의 정신은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회향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최소한 내 이웃, 지역사회의 중생들을 위해 불교를 회향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은사는 10월 3일 현각 스님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10월 10일 정면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10월 17일 지을 스님(내원사 산감) △10월 31일 김중서 박사(서울대 명예교수) △11월 7일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11월 21일 학담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11월 28일 김은철 교수(중앙승가대) △12월 5일 철우 스님(선우승강 공동대표) △12월 19일 상덕 스님(육수종합사회복지관장)의 "자비복지 활동을 통한 불교정토 실현" 등의 법석을 마련한다.

박봉영 기자

사법부 '선암사' 판결에 조계종 강력 반발

대책위 구성 공동대응

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교구본사주지 스님들과 포교·신도단체들도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공동대처를 결의했다.

총무원은 10월 5일 '부산 선암사 정상화 범종단 대책위원회(위원장 무관·총무부장, 이하 선암사 대책위)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을 뿐 아니라 6일에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암사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종법에 명시된 사찰주지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세간법의 판단을 구하는 등 종헌과 종법에 명시된 종단의 화합과 중무행정의 기본질서를 깨뜨린 자에 대해 재판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종단 자체적인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종단을 또다시 분규로 몰아가기 위한 저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

7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와 포교·신도단체 대표자 회의에서도 각각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

한편 부산지법 민사 제6부(재판장 김중기)는 지난 9월 24일 전 선암사주지 정야 스님이 제기한 '징계처분 등효력정지및주지임명절차이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 및 주지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국민화합 수록대재·유등 축제

15~18일 옥천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국민화합을 기원하기 위한 '수록대재 및 유등축제'가 10월 15~18일까지 4일간 옥천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열린다.

유등축제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명·지원)가 주최하고 옥천불교

사암연합회와 충북불교총연합회,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15일부터 매일 오후 3~5시까지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나들목 일대에서 한국의 전통등과 불교 전통등 80여 점이 전시된다.

한명우 기자

대구불교방송 새 사장 법조 스님 추천

대구불교방송은 10월 8일 회의실에서 2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3대 신임사장에 현 조계종 중앙총회 수석부대장인 법조 스님(사진)을 추천했다.

법조 스님은 1944년생으로 58년

도원 스님을 은사로 수계하고, 고운사 주지와 조계종 9대 중앙총회위원을 역임했다.

사장 임기는 4년이며,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서울 본사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배지선 기자

동판 팔만대장경 추진위원장에게 이수성 前총리

세민 스님과 이수성 前 국무총리(사진)가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간행 불사를 담당할 총도감과 범국민 추진위원장에 임명됐다.

해인사는 방장 법전 스님, 주지 내장자 현승 스님 등 문중 스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6일 대웅전에서 이수성 前 국무총리와 현 주지 세민 스님을 각각 동판 팔만대장

경 간행 불사 범국민추진위원장과 총도감에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수성 前 총리는 이날 "해인사 동판대장경 불사가 우리 민족을 단결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16개 단체로 구성된 '해인사대책위'는 10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민 스님을 총도감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유신·배지선 기자

몽골 대학생불교연합 창립

몽골국립대 교수로 재직중인 남정주 씨(우리는선우 회원)의 노력으로 대학생불교연합회가 창립됐다.

몽골대학생불교연합회(지도법사 소닝바야르 스님, 간담사 불교대학장)는 10월 2일 몽골 국립대학교 강당에서 몽골국립대와 국립사범대 학생 150여명 참가한 가운데 몽골 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지도법사 소닝바야르 스님(간담사 불교대학교 학장과 몽골 지도교수들은 축사를 통해 "몽골의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몽골대학생불교연합회를 한국 사람인 남정주 교수가 결성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몽골대학생불교연합회는 창립과 더불어 불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목은 1단계로 몽골 불교역사와 영어, 한국어 지도, 2단계로 몽골 불교 기초교리 지도, 3단계로 몽골 불교교리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또 간담사 불교대학에 의뢰하여 불교 의식도 배우게 된다.

김원우 기자

우리의 대표 브랜드 - 삼성

그녀의 마음을 샀다, 삼성카드 보너스점수로!

근사한 저녁을 할까?
시집을 사 줄까?
드라이브를 할까? 야나 야나...
가을꽃 한 다발!!
여기 저기 다 보너스클럽 가맹점이니까~
오늘은, 보너스점수가 현금이다!

Good! 삼성카드와 함께하는 3355 보너스 파티!

행운1) 보너스클럽에서 삼성카드로 5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원 보너스점수의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2) 삼성카드 코백이 보너스클럽에서 카드 이용 시 추첨을 통해 보너스클럽 가맹점주께 공기청정기의 행운을 드립니다

• 행사기간: 04.08.01~03.31 •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를 참조하세요